



기상청

내일을 위한 청부혁신
보다 나은 정부 **한국판뉴딜**
대한민국 대전환

설명자료

배포일시

2021. 4. 13.(화) 16:00 (총 3매)

보도시점

즉 시

담당부서

전주 기상지청
관측 예보과

담당자

과 전 문 장 관 주 형 돈 종
관 양 석 종

전화번호

063-249-3240

14~15일 기온 영하로 뚫! 냉해 대비 철저

- 전북 동부 내륙 중심 영하권, 얼음과 함께 서리 발생 가능성 높아
 - 개화기 및 발아기 관련 각종 과수 및 농작물 저온 피해 주의



[4월 14~15일 추위 및 한파 모식도]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병춘)은 14일(수)~15일(목), 2일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고, 서리와 함께 농작물냉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피해 예방에 대한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- 우리나라는 현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,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기압(좌)과 저기압(우)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찬 공기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.
- 이 영향으로 14일~15일 동안, 새벽에서 아침 사이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최저기온이 영상 5°C를 밟돌고, 동부내륙을 중심으로는 0°C 이하로 오늘보다 10°C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‘한파특보’를 발표(13일 10시 기준)하였다.

<한파주의보(13일 10시 발표/ 22시 발효)>

- 전라북도(무주, 진안, 장수)

- 최근 포근했던 날씨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까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큰 기온변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.
- 또한, 이 기간 내륙 곳곳에는 서리 현상이 예상되며, 개화를 마치고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,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